

“하인즈 워드, 볼 잡아라” 피츠버그 스틸러스의 리시버 하인즈 워드(오른쪽·86번)가 6일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 하인즈 필드에서 벌어진 덴버 브루크스과의 경기 4쿼터에서 볼 다름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日 언론 “이승엽 몸값 인상 역대 최고”

일본 언론은 6일 요미우리 자이언츠가 이승엽(30)과 4년간 총액 30억 엔(240억 원)에 달하는 매머드급 계약을 성사시킨 것에 놀라움을 표시하며 관련 사실을 대서특필했다.

요미우리 구단과 이승엽은 구체적인 금액을 밝히지 않았지만 일본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승엽의 내년 연봉은 6억5천만엔이며 4년간 몸값 총액은 30억 엔이다.

이승엽이 4년간 해마다 시즌이 끝난 뒤 계약을 새로 협의하는 이른바 ‘유동 연봉’ 계약을 해 2008년 이후 연봉은 달라질 수 있다.

하지만 4년 다년 계약의 출발점인 내년 연봉이 6억5천만엔이고 4년간 상한선은 30억 엔으로 보면 된다는 것이 일본 언론의 추정이다.

계약금을 합한 총액을 4년으로 나눈 평균 연봉은 7억 5천만엔 수준.

“초특급 대우” 대서 특필

“거물 마쓰이 보다 많아”

요미우리 기관지인 ‘스포츠히치’는 6일 인터넷판에서 이승엽이 마쓰이 히데키(뉴욕 양키스)를 넘어서는 초특급 대우를 받게 됐다고 보도했다.

연봉은 1억6천만 엔에서 6억5천만엔으로 305%나 급상승했고 일본야구 최고 연봉 선수인 세이부의 알렉스 카브레라(6억엔)를 넘어섰다고 덧붙였다.

특히 요미우리가 일본 선수 및 외국인 선수를 불문하고 1년 또는 2년 계약만 해왔던 관례에 비춰볼 때 4년 계약은 획기적이라며 이는 요미우리 우승과 메이저리그 진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 사냥에 나선 이승엽의 의사

를 요미우리가 최대한 존중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전했다.

‘산케이스포츠’는 이승엽의 연봉 6억5천만엔은 7억2천만엔이라는 요미우리 구단 사상 최고 연봉을 받았던 로베르토 페타지니(2003~2004)에 이어 구단 사상 두 번째로 높은 금액이라는 점을 강조했고 마쓰이가 미국으로 진출하기 전 요미우리에서 마지막으로 받았던 6억 1천만엔 보다도 많은 돈이라고 소개했다.

이 신문은 이승엽의 대리인인 미토 시게유키 변호사의 말을 인용, 이승엽 측이 거액을 요구한 게 아니고 요미우리가 파격적인 제안을 미리 준비해왔다는 내용도 덧붙였다.

‘스포츠히치’는 이승엽의 연봉 인상액이 4억9천만엔으로 일본 야구 사상 역대 최고액이라는 데 주목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靑 프로야구 왕중왕 가린다

코나미컵 아시아시리즈 9일 개막

日·中 등 4개국 참가·열전 4일

아시아 프로야구의 왕중왕을 가리는 ‘코나미컵 아시아시리즈 2006’이 오는 9일 일본 도쿄돔에서 막을 올려 4일 열전에 들어간다.

올해로 2회째를 맞는 아시아시리즈는 2년 연속 한국시리즈를 제패한 삼성 라이온즈와 일본 재팬시리즈 챔피언 니혼햄 파이터스, 대만프로야구리그 우승팀 라뉴 베어스, 중국의 국가대표팀 등 4개국 최강자가 참가해 각국의 자존심을 걸고 환관 대결을 펼친다.

이번 대회 예선리그 개막전은 오는 9일 개막 당일 열리는 삼성-니혼햄 간 맞대결.

선동열 감독이 이끄는 삼성은 권오준-오승환의 막강 불펜을 앞세운 ‘지키는 야구’가 강점이다.

또 ‘용병 듀오’ 팀 하리칼라, 제이브라온과 오상민, 전병호 등 30대의 베테랑, 임동규, 임창용, 권혁 등도 마운드에 힘을 보탠다.

한국시리즈 때 팀 타율 0.209의 타격 부진에 빠졌던 타선이 방망이 위력을 되찾느냐가 고민거리.

니혼햄은 퍼시픽리그 챔피언결정전에서 견고한 방패의 소프트뱅크 호크스

를 2전 전승으로 누른 뒤 재팬시리즈에서도 센트럴리그 1위 주니치 드래곤스마저 4승1패로 제압하고 우승한 일본의 최강자.

나란히 12승을 수확한 이란계 우완 다트릿슈 유와 신인 좌완 야기 도모야가 나서는 ‘원투 펀치’와 39세이브를 올린 마무리 마이클이 지키는 뒷문도 든든하다.

올해 FA 자격을 얻어 요미우리 자이언츠 이적이 거론되는 강타자 오가사와라 미치히로와 재팬시리즈 최우수선수 이나바 미쓰노리, 용병 세기플 등이 포진한 타선은 삼성보다 중량감이 느껴진다.

대만의 라뉴는 삼성이 결승에 오르기 위해 반드시 꺾어야 할 상대다.

대만리그 6개팀 중 팀 타율(0.284)과 방어율(2.95)에서 1위를 기록하는 등 투·타의 짜임새가 좋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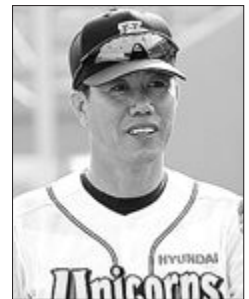
미국프로야구 LA 다저스 출신의 쉐인진과 지난 3월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대표였던 린지션, 스즈웨이가 경쟁대상.

마운드에는 올해 17승의 좌완 우스요우와 16승의 용병 마이클 레이본이 눈에 띈다.

중국은 WBC 멤버들이 주축을 이뤘지만 삼성의 맞수로는 기량이 한 수 떨어진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현대 새감독 김시진씨



김시진(48·사진) 투수코치가 ‘투수왕국’ 현대 유니콘스의 새 사령탑으로 선임됐다.

프로야구 현대는 6일 LG 트윈스 감독으로 옮긴 김재박(52) 전 감독의 후임으로 김시진 투수코치를 선임했다고 밝혔다. 계약 조건은 3년에 계약금 2억원과 연봉 2억원 등 총 8억원이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신문신문개

7일(화)

▲전국 대학농구 연맹전 2차대회(12:00·SBS스포츠)

▲현대캐피탈배 전국대학배구(인하대-한양대)(14:00·KBSN SPORTS), <경기대-홍익대>(16:00·KBSN SPORTS)

▲프로농구(동부-전지랜드)(18:50·X-sports, SBS스포츠)

▲STX 초청 이라크 축구 국가대표팀 평가전(FC경남-이라크)(19:00·MBC ESPN)

8일(수)

▲06/07 본테스리가(마인츠-볼프스부르크)(04:00·MBC ESPN)

▲칼링컵 축구(사우스랜드-맨체스터 Utd)(04:35·KBSN SPORTS)

방신의 증상이 살아났습니까?

중심역력

세계가 인정된 남성 의료기기 - **수술이민 수술이나 약없이 무통!**

www.mingjoo.co.kr

080-333-3262

(주)제주무궁화관광 | ☎064-744-1109

제주여행 2박3일 78,000원

제주도 1박 2일, 제주도 1박 2일, 제주도 1박 2일

제주도 1박 2일, 제주도 1박 2일, 제주도 1박 2일

제주도 1박 2일, 제주도 1박 2일, 제주도 1박 2일